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국, 생명보험사 경영악화에 따른 보험판매 축소

□ 미국 생명보험사들의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단기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계약초기 발생비용이 높은 보험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는 주로 채권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지만 유가증권의 19% 가량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으며 10%는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 있음.
- 많은 보험사들이 아직도 투기등급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정크본드로 지정된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연말까지 9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설명함.

□ 보험상품 판매가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원이긴 하나 보험모집인 등에 지급되는 선급수수료 등으로 계약초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며, 감독당국 또한 준비금 적립 요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보험소비감소 때문에 2009년 상반기 생명보험 신규판매는 23%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70년 중 최악의 감소율임.
-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애널리스트는 많은 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위해 보험 신규판매 감소를 용인하고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되면 보험산업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최근까지 경쟁심화와 함께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도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며 가입을 유도했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프로텍티브(Protective)사는 정기사망보험 판매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보험료를 올해 14% 인상했고 ING도 정기보험료를 5% 인상할 예정이며, 썬 라이프(Sun Life)는 무해약 유니버설보험⁴⁾ 사업의 축소를 발표함.

(The Wall Street Journal, 9/22)

4) 무해약 유니버설보험은 적립금이 0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계속보험료가 납입되면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임.